주장자따라…

⑤ 혜월 스님의 '문자'

조태호

혜월 스님(1861~1936): 충남 예산生. 열살때 정혜사에서 혜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 경허 스님께 전법게 받음. 전국 선원서 정진하며 후학지도하다 부산 안양암에서 원적

네티즌 교리문답

무위법, 무위 세계의 의미는?

문 무위법, 무위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선 해설서에는 '함이 없는 법, 함이 없는 세계'라고 풀이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요.(ID '박종윤')

답1 : 불자님의 마음속에 '아, 이것이구나' 하는 작은 마음이라도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유위법. 즉 작은 단지 속에 물은 적어도 출렁입니다. 물이 출렁이지 않으려면 물을 완전히 비우세요. 그런 다음 단지마저 깨뜨려 버리세요. (ID '법설')

답2 : 모든 세상사가 이미 함이 없는 '무위법(함이 없는 법)'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 의해, 나를 위한, 즉 '나'라는 에고(我相) 때문에 무위법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 입니다. (ID '김명상')

답3 : 무위(無爲)는 선(禪)적인 차원이지 교학(敎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유위(有爲)로 인해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하지 않음으로써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위적인) 노력은 내 팽개쳐라. 단지 조용히 앉아 있어라. 그리고 내면을 보라. 보고 있는 그놈이 그대가 찾는 그 놈이다. (ID '태양성')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㉙

불립문자(不立文字)-2

언어는 탐욕·분별 담긴 표현의 수단일뿐

언어는 워낙 분별의 기제라는 것이 불교의 언어관이다. 계다가 그 분별은 진상을 충실히 가려내는 분별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이 반영된 자의적인 분별이라고 본다. 더욱이, 일단 어떤 사물에 자의적인 분별을 담은 말을 갖다 붙으면 우리는 그만 그 말에 휘둘려서 그 말을 통해서 사물을 재단해 버린다. 선불교는 그런 입장을 아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갔으며 그것을 단적으로 표명한 것이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구호이다.

사물에 이름이 없었을 때를 상상해보자. 17세기 영국 시인 존 밀턴(John Milton)의 서사시 <실락원(Paradise Lost)>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하고 거기에 낙원을 마련하고는 인간을 만들어 거기에서 살게 하였다. 모든 것이 처음인지라 사물에도 이름이 없었으리라고 밀턴은 상상하였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완벽한 낙원에서 편안히 지내며 낮에는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온갖 사물에 이름을 붙여주는 일로 소일한다.

사물에 이름을 붙인다 함은 사물을 서로 구분하는 일이다. 다르게 생긴 꽃을 보고 각자 장미라는 이름과 국화라는 이름을 붙였을 텐데, 그 이름으로 인하여 장미라는 이름의 꽃과 국화라는 이름의 꽃이 서로 다르다는 인식이 고착된다. 이름 붙이기는 사물과 사물 사이의 그런 단순한 구분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인간 의식이 지어내는 한 없이 복잡한 분류체계를 반영한다. 장미, 국화, 민들레, 개나리, 진달래 등은 꽃이라는 개념으로 묶이고, 버드나무, 참나무, 소나무 등은 나무로 분류된다. 꽃과 나무, 풀은 모두 식물에 속하고 동물 및 광물과 구분된다.

그러고 보면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의사소통은 모두 그런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분류체계와 이름이 사물의 진상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학습된 분류체계와 이름, 나아가 거기에 관습적으로 부여된 의미라든가 가치판단을 그대로 철석같이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것이 더 큰 문제이다. 적어도 불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다.

우리는 대개 언어란 우리의 체험과 인식, 판단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여긴다. 한 마디로 우리의 사유를 표현하는 도구로 본다. 그러나 현대 언어학에서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을 역설한다. 언어는 우리의 사유를 규정하는 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 사물에 어떤 특정의 이름이 붙은 것은 필연적이 아니라 다분히 임의적이라는 점, 이름의 의미는 그것이 가리키는 사물의 고유한 특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이름과의 구별에서 나온다는 점도 현대 언어학에서 역설한 바이다. 예를 들어 '나무'라는 말은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버드나무를 가리키며 '저건 나무야'라고 말할 때에는 산이나 물, 건물 같은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나무를 말한다. 한편, 책상을 가리키며 '저건 나무야'라고 할 때에는 철제나 플라스틱이 아닌 목재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언어는 그 자체가 사물의 진상을 그대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분류체계의 문맥 속에서만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한정된 역할을 한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수호일체성 주야신의 법문

부처님 가르침 음성으로 표현해 제도

법계 올바로 관찰, 깨달음의 행 실현

선재동자는 적정음해 주야신의 소개를 받고 '모든 성을 수호하는 주야신(守護一切城主夜神)'을 찾아간다. 그 주야신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나서, 보살들이 보살행을 닦을 때에 어떻게 중생을 이익케 하고, 가장 훌륭하게 중생을 거두어 주는지를 물었다.

이에 주야신은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매우 깊고 자재한 묘한 음성의 해탈(甚深自在妙音解脫)'을 얻었다"고 하면서, 자신은 큰 법사가 되어 거리낌 없이 모든 부처님의 법장을 잘 열어보이며, 중생을 이익케 하는 모든 일을 지어서 선근을 쌓는 일을 쉬지 않으며, 모든 중생을 지도하는 스승이 되어서 모든 중생을 일체지(一切智)의 도에 머무르게 하는 등등의 일을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으로 중생에게 베푸는 것은 선법을 내어 온갖 지혜를 구하게 하며, 온갖 지혜의 도를 돕는 법(助道法)을 모아서 마음에 항상 온갖 지혜의 지위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주야신이 말하고 있는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의 해탈'의 경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대로 표현해서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경지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주야신은 이 해탈을 얻음으로 해서 큰 법사가 되어 아무런 걸림이 없이 자유롭게 모든 부처님의 법장(法藏)을 열어보여서 중생들로 하여금 선법을 내어 온갖 지혜를 구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의 해탈'을 얻어서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주야신은 그 내용을 주로 열 가지의 법계 관찰과 열 가지의 큰 위덕이 있는 다라니 바퀴(陀羅尼輪)를 가지고 나타내 보이고 있다. 주야신은 먼저 "선남자여, 나는 이와 같은 깨끗한 법의 광명으로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여 선근과 도를 돕는 법을 모으게 할 때에 열 가지로 법계를 관찰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설하고 있다.

그 내용은 광대한 지혜를 얻어서 법계가 무량하고 무변함을 아는 것,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들어가서 여러 여래에게 공경하고 공양할 수 있기 때문에 법계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여래의 한결같은 음성을 모든 중생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법계가 한 성품(一性)임을 아는 것, 여래의 서원이 모든 중생을 두루 제도한다고 하는 것을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법계의 성품이 깨끗함을 아는 것, 보현의 묘한 행이 일체에 두루하기 때문에 법계가 중생에게 두루함을 아는 것, 보현의 묘한 행이 널리 장엄하기 때문에 법계가 한 가지로 장엄함을 아는 것 등이다. 주야신은 "이 열가지로 법계를 관찰하여 선근을 모으며, 도를 돕는 법을 마련하며, 부처님들의 광대한 위덕을 알고, 여래의 부사의한 경계에 깊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설하고 나서, 주야신은 다시 "이렇게 바른 마음으로 생각하여 여래의 열 가지 큰 위덕이 있는 다라니바퀴를 얻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설하고 있다. 그것은 이른바 모든 법에 두루 들어가는 다라니바퀴 ? 모든 법을 두루 지니는 다라니바퀴 ? 모든 법을 두루 말하는 다라니바퀴 등이다.

주야신은 "이 열 가지는 일만 다라니바퀴로써 권속을 삼고 항상 중생에게 묘한 법을 연설한다"고 하면서, 중생에게 듣는 지혜(聞慧), 생각하는 지혜(思慧), 닦는 지혜(修慧)의 법 등을 갖가지로 말해서 불가설 법문으로 중생에게 얘기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로써 법문의 한 단락을 마무리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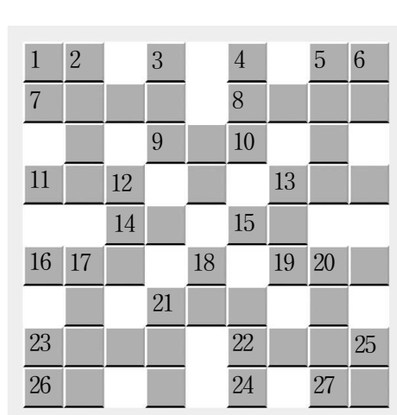
"선남자여, 나는 여래의 차별 없는 법계문바다에 들어가서 위없는 법을 말하여 중생들을 두루 거두어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현의 행에 머물게 한다. 나는 '이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해탈'을 성취하였으므로 잠깐잠깐마다 온갖 해탈문을 증장하며, 해탈의 경계를 수습(修習)하는 하나 하나의 방편에 의해 잠깐잠깐마다 모든 법계에 편만한다."

수호일체성 주야신의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해탈' 법문은 무엇보다도 법계를 올바르게 관찰할 수 있어야 선근을 모으고, 부처님들의 광대한 위덕을 알고 부사의한 경계를 알게 되어 갖가지 법으로써 중생에게 묘법을 설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일체의 세계에서 두루 널리 깨달음의 행을 실현해 보이는 보현의 행에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해탈법문은 모든 존재의 실상(實相)을 진실되게 이해해서 그것을 묘한 법문으로써 자유자재하게 꽃피워냄으로써 중생을 교화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지식의 이름이 '모든 성을 수호하는 주야신'인 것은 경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주야신이 "무명에 가려서 생사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밤과 같은 윤회의 어두운 삶 속에 있는 중생들 중에 홀로 깨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의 성(心城)을 수호하고 삼계(三界)의 성을 버리게 하여 온갖 지혜의 위없는 법의 성(法城)에 머무르게 하기 때문"인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절에서 의식할 때 치는 기구 5.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 7.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한다는 뜻 8.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산 9. 답을 서술식으로 쓰는 문제 형식 11. 지구 밖의 다른 천체에서 온 사람 13. 아들의 양녀 14. 공적인 일 15. 나라나 임금을 배반하여 군사를 일으킴 16. 잡다움, 착함, 아름다움을 아우르는 말 19. 부처님의 교법을 법륜이라 하고 교법을 설하는 것을 뜻함 21.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설법제일 23. 뜻을 이루어 뽐내며 거들먹거림 24. 한국 상고의 단군조선을 대통일 민족국가로 서술한 역사책 26. 좋은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품종을 개량하는 일 27. 문장의 단락.

세로 1. 양치는 아이 2. 책상 위에 올려 놓고 보는 시계 3. 고려말 충신으로 호는 포은 4. 관공서 등에서 새해 업무를 보기 위해 행하는 의식 5. 자손의 여러 대 6. 우리나라 제 2의 도시 10. 관직에 있는 사람 12.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움 13. 조선 정조 때 박지원(朴趾源)이 지은 한문 소설 17. 조선시대 회불정책의 일환으로 선종과 교종을 폐합한 것 18. 망을 보기 위해 세운 높은 다락집 20. 법률에 대해 자문하는 직무 21. 아니할수 없는, 마지못해 22. 나한을 모신 전각 23. 돌보아 길러 자라게 함 25. 건축물이나 비석 따위의 기초가 되는 단.